

“대중성 확보로 문화관광 르네상스 구축 주력”

‘출범 3주년’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 ‘체류형 예술여행 도시’ 브랜딩 아트패스·버스킹월드컵 등 강화 “혁신 사업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은 출범 3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대중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예술여행 중심도시 조성을 목표로 도약을 준비한다.

지난 2023년 광주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문화관광 전담기구로 신설된 동구문화관광재단은 그간 광주아트패스, 버스킹월드컵 등 동구의 주요 문화관광 사업을 이끌며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구문화관광재단은 을사년 새해를 맞아 △일상 속 생활문화가 꽃피는 주민주도의 문화예술 활성화 △지속 가능한 체류형 예술여행 중심도시 조성 △융복합형 글로벌 축제 육성 등 문화·관광·축제의 방향을 잡고 18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일상 속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향기 확산

동구문화관광재단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과 도심의 야간 명소를

활용한 장소형 브랜드 공연 ‘빛의 콘서트(가제)’ 등의 사업들을 지속 운영한다.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예술배달 서비스 ‘문화보따리’ 사업, 동구 9보를 활용한 교육콘텐츠 ‘보물탐험대’ 등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전국민적 관심을 이끈 골목 문화자산을 활용한 청소년 스트리트댄스 캠프를 개최하며 다채로운 로컬문화형성에도 앞장선다. 청소년 스트리트댄스 캠프는 유명 댄서와 케이팝 아이돌을 배출한 동구 소재 댄스 아카데미와 함께 힙합, 팝핑, 왁킹 등 댄스 장르를 배울 수 있는 워크숍과 댄스 경연을 연계해 6일 동안 진행된다.

●‘체류형 예술여행 도시’ 브랜딩 극대화

스마트아트빌리지 조성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관광 통합플랫폼 ‘광주 아트패스’도 새로 도입된다.

‘광주 아트패스’는 지역의 문화예술·관광자원을 스마트 기술과 융합해 구축한 스마트 관광플랫폼으로 광주를 찾는 여행객에게 쉽고 편리한 여행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아트패스’ 가맹점들과 함께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운영해 다양한 활인 이벤트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은 스마트아트빌리지 조성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관광 통합플랫폼 ‘광주 아트패스’를 올해 새로 도입한다. 사진은 ‘광주 아트패스’ 신청 및 운영 현장.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 제공

또 동구의 골목에 스토리를 입혀 골목상가, 단체 등과 연계해 체험, 씬 그리고 미식이 있는 광주 대표골목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활동하는 동구친구, 주민문화해설사 등 지역 주민이 직접 해설사로 참여해 지역성을 강화하고 연극, 버스킹, 뮤지컬 형태의 새로운 스토리텔링 해설 기법을 도입해 광주 여행자라면 반드시 방문해야 할 핵심 상품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글로벌 축제 대중·흥행성 강화

동구문화관광재단은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세계 최대 버스킹 음악축제인 ‘광주 버스킹 월드컵’의 대중성을 확보해 친근한 축제로의 변모를 추진한다.

‘광주 버스킹 월드컵’은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개성 넘치는 뮤지션들이 월드컵방식(예선-32강-16강-8강)으로 펼쳐지는 글로벌 음악 오디션으로 매년 총장축제 기

간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해까지 열렸던 ‘광주 버스킹 월드컵’은 다양성과 전문성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다국적의 참가자들이 각국의 언어로 노래하는 등 현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는 대중성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이에 올해는 32강 라이브 경연, 유명한 디뮤지션 초청공연과 댄스, 난버벌 공연(대사가 없이 진행되는 공연)을 확대하고 경연곡 중 1곡을 커버곡으로 부르도록 하는 규칙을 마련해 축제의 대중성과 흥행성 확보에 나선다.

또한 시민 심사위원제를 도입해 경연의 공정성을 높이고, 도심 곳곳에서 축제의 열기를 전하는 팝업 무대를 구축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축제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문학현 동구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관광 분야의 혁신적인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동구가 문화관광 르네상스를 열어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문화관광재단은 광주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설립한 문화관광전문 조직이다. 현재 동구문화·관광·축제 분야 사업과 동구문화센터, 동구국민체육센터 등 관내 5개 문화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설날 가족과 웃놀이 하며 아시아 문화도 배워요”

ACC재단, 들락 키즈 신상품 출시
설맞이 온·오프라인 이벤트 풍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 재단)은 설 연휴를 앞두고 ACC 문화상품점 ‘들락 DLAC’의 어린이 상품인 ‘들락 키즈’ 신상품으로 시아와 친구들 웃놀이 세트를 출시했다.

22일 ACC재단에 따르면 이번 ‘웃놀이 세트’는 ACC 어린이문화원 ‘시아와 친구들’ 캐릭터를 활용한 전통놀이 상품으로, 웃놀이를 하며 간단한 미션을 통해 아시아 문화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웃놀이 세트는 ACC 온·오프라인 문화상품점 ‘들락 DLAC’과 어린이문화원에서 구매할 수 있다.

ACC 문화상품점에서는 신상품 출시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31일까지 ‘들락 DLAC’ 공식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물에 새

해 소망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또 25일부터 30일까지 ACC 문화상품점 들락과 들락키즈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이벤트도 진행된다.

설맞이 이벤트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ACC 문화상품점 들락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ACC 문화상품점 브랜드 ‘들락 DLAC’은 독자적이면서 연결된 아시아의 문화를 의미한다. 들락의 어린이상품 브랜드인 ‘들락 키즈’는 아이들이 아시아 문화를 친근하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시아와 친구들’ 캐릭터를 활용한 교구재, 놀이, 문구, 도서 등 다양한 어린이 문화상품을 제작하여 선보이고 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첼로가 선사하는 특별한 음악... ‘Cello Moments’

광주시향, 체임버 시리즈 I ACC 예술극장서 내달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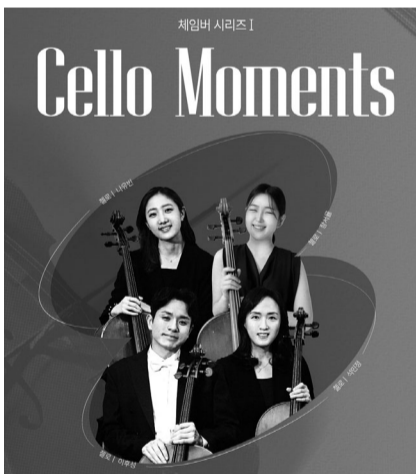
광주시립교향악단(광주시향)의 올해 첫 체임버 시리즈 무대가 다음달 21일 오후 7시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열린다.

이번 체임버 시리즈 I ‘Cello Moments’는 첼로의 매력과 감동적인 순간들을 중심으로 기획된 특별한 공연이다.

이번 공연에는 광주시향의 첼로 차석 단원인 이후성을 비롯해 석민정, 나유빈, 장서울 단원이 무대에 올라 첼로 앙상블의 진수를 선보인다.

공연은 파콰의 ‘4대의 첼로를 위한 크리스의 추억’으로 시작된다.

이 곡은 프랑스 작곡가 파콰가 크리스 마을에서 받은 감동과 추억을 서정적인 멜로디와 첼로 4대의 하모니로 풀어낸 작품이다.



체임버 시리즈 I ‘Cello Moments’ 출연진. 광주 예술의전당 제공

이어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파헬렐 ‘개는 번주곡’을 첼로 사중주로 들어보고, 콤머의 ‘2대의 첼로를 위한 듀엣’, 풍크의 ‘소나타 - 4대의 첼로를 위한 모음곡’을 연달아서 연주한다. 두 작품을 통해 첼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다르게 느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반부의 시작은 골터만의 ‘렐리ژی오 소’가 알린다. 신성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 곡은 첼로 4대가 만들어내는 엄숙한 하모니로 관객들에게 마치 성스러운 공간에 있는 듯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어 비발디의 대표작 ‘사계’ 중 ‘봄’과 ‘겨울’이 첼로의 음색으로 새롭게 연주된다. ‘봄’의 생동감 넘치는 선율과 ‘겨울’의 고요하면서도 서늘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

광주시향 관계자는 “첼로의 깊이 있는 음색과 풍성한 화음을 통해 서로 다른 순간의 감동을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음악적 여정을 선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광주시향 체임버 시리즈 I ‘Cello Moments’는 누리집과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입장권은 전석 1만원이며 초등학교 생 이상부터 관람 가능하다. **박찬 기자**

광주시립극단, 정기공연 ‘위선자 타르튀프’ 배우 공개 모집

‘세계 명작 시리즈’ 일환 오는 31일까지 원서접수 다음달 4일 오디션 진행 4월24~26일 총 5회 공연

광주시립극단은 제24회 정기공연 ‘위선자 타르튀프’에 참여할 배우를 오는 3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22일 광주시립극단에 따르면 이번 공개 모집의 분야 및 인원은 연기자 12명

이다. 접수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응시 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gjdrama@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오디션은 다음달 4일 광주시립극단 연습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필수과목은 △지정연기 △자유연기 △특기 △면접이고 연습 및 공연 일정에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모집한다.

합격자는 다음달 7일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http://gjart.gwangju.go.kr)을 통해 발표된다.

응시 원서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062-511-275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립극단 제24회 정기공연 ‘위선자 타르튀프’는 시립극단 세계 명작 시리즈의 일환으로 세계 최고의 희극작가 몰리에르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원광연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아 오는 4월24일부터 4월26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총 5회 공연할 예정이다. **박찬 기자**